

## 여행원 차등대우 고쳐져야

국민은행장 상대 임금청구소송 이선자씨

**인 터 뷰**

“어렵게 결심해 제기한 이번 소송이 금융계의 오랜 남녀임금 차별을 개선하는 기틀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지난 6일 이상철 국민은행장을 상대로 ‘3년 동안 똑같은 경력의 남자 행원보다 덜 받은 9백92만4천4백94원을 지급해달라’고 서울민사지법에 임금지급청구소송을 낸 국민은행 노조 부위원장 이선자(37)씨는 “오랜 고민 끝에 소송을 제기했다”고



### “같은노동 같은임금 확립을” 16년간 평행원으로 창구일

털어놓았다.

89년 9월 ‘동일노동 동일임금 실현’을 공약으로 내세워 4천여 여행원들의 전폭적인 지지로 노조 부위원장에 당선된 이씨는 노조선거 뒤 은행에서 △기혼남성에 국한했던 임차금 대출을 기혼여성에게도 개방하고 △6일간의 유산특별휴가와 △임신한 여성에게 월 1일의 정기검진일 제공 △경력 15년 된 여행원 호봉을 남자 호봉으로 상향조정하는 등 여성문제 해결에 관심을 기울여왔기 때문에 소송을 제기하기가 쉽지 않았다고 말했다.

“국민은행장을 상대로 소송을 냈지만, 국민은행이 국책은행이므로 사실상 정부를 상대로 한 소송입니다. 정부에서 동일노동 동일임금을 실현시킬 수 있는 특별예산을 배정해주어야만 임금 격차가 해소될 수 있거든요.”

같은 고졸 학력으로 은행에 들어가 거의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남자는 초급행원, 여자는

여행원으로 분류해 기본급·호봉·승급액·직책수당·체력단련비 등을 다르게 지급하는 것은 “남녀 고용평등법이 규정한 동일노동 동일임금 원칙에 어긋나는 부당 임금”이라고 이씨는 주장했다.

“결코 남성에 대한 투쟁이 아닙니다. 똑같이 출발해 비슷한 일을 하면서도 상대적으로 적은 임금을 받는 여행원들에 대한 부당한 임금체계 개선을 위한 것이지요. 남녀 임금격차를 줄여 동등하게 만들고, 해마다 같은 비율로 임금이 인상되는 게 여행원들의 절실한 바람입니다.”

만 16년 동안 평행원으로 창구업무를 맡아 온 이씨는 “16년 동안 차별당한 임금을 청구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임금소멸시효가 3년이라 3년 동안 덜 받은 9백여만원을 청구했다”면서 “소송이 순조롭게 진행돼 전국 8만여 여행원들이 처한 부당대우 현실이 바로잡혔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 “이씨 소송 지지”

경실련 여성위원회

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 여성위원회(위원장 성백엽)는 8일 ‘국민은행 이선자씨의 임금지급청구소송을 지지한다’는 성명을 발표하고, “국민은행이 소송을 기피하거나 이씨에게 부당 압력을 가하면 경제정의실현 차원

에서 강력 대응하겠다”고 밝혔다.

경실련 여성위원회는 성명에서 “금융계의 남녀차별 임금체계는 여성을 희생양으로 삼아 저임금구조를 지탱해온 경제 부정의 표본”이라 지적하고, “국책은행이자 서민이 가장 많이 이용하는 국민은행이 앞장서서 여성 노동자에 대한 부당관행을 바로잡으라”고 촉구했다.